

빅토리아 아멜리나 유고 전쟁일기 ‘여성과 전쟁’



2023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 작가들이 모여 있던 식당에 러시아군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로부터 나흘 뒤, 서른일곱의 작가 빅토리아 아멜리나가 숨을 거뒀다. 전쟁범죄를 추적하며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누볐던 작가 빅토리아 아멜리나의 유작 ‘여성과 전쟁’ (파초래·이수민 옮김)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드론 조종사부터 지뢰 제거 조사관까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기록 남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습이 하르키우, 수미, 르비우 등으로 확대됐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러 공습 피해 사진. /브뤼셀=연합뉴스

전쟁터를 기록한 목소리, 죽음 너머 증언으로 남다

아멜리나는 생전 조지프 콘래드 문학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소설가이자 시인, 동화작가, 에세이스트, 인권운동가였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그는 작가에서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변모했다. 비정부기구 트루스하운드에서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훈련을 받은 뒤, 아멜리나는 익숙한 소설 대신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도 그는 기록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고문과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의 이름뿐 아니라, 그에 맞서 싸운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 또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전쟁일기를 집필해 나갔다. 이 책에는 드론 조종사가 된 인권변호사,

아간 열차에 실린 문학과 자료를 지키기 위해 화물칸에서 보초를 선 이, 지뢰 제거를 택한 조사관, 고문을 이겨내고 전장으로 돌아온 생존자 등 수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아멜리나는 전쟁 범죄 현장을 직접 누비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들을 기록해나갔다. 러시아군에 납치돼 고문당하고 살해된 동화작가 볼로디미르 바쿨렌코의 사건을 조사하며, 그가 납치 하루 전 정원에 묻어둔 일기를 찾아냈던 에피소드는 책 속에서도 중요한 장면으로 남는다. 그는 이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소련과 러시아의 압제 아래 반복돼온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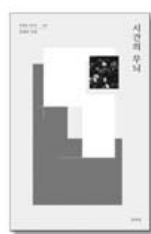
크라이나 예술가 집단 숙청의 연장선에 놓고 바라본다. 1937년 산다르모호수에 묻힌 예술가 289명, 1965년 또 한 번 숙청된 수많은 저항 예술인들, 그리고 2022년의 바쿨렌코, 2023년의 아멜리나. 이 책은 이 죽음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의 예술과 정체성을 수호하려 했던 사람들의 연쇄된 희생이라 말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선택의 시간’, ‘나의 길을 찾아서’, ‘전쟁을 살아가다’, ‘해답과 승리’라는 제목 아래 아멜리나와 그녀가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졌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아멜리

나는 참상을 기록하면서도 전시 상황 속 어쩔 게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책 말미에는 ‘에필로그를 대신하는 시’, ‘편집 후기: 빈 페이지들’, ‘부록: 조각들’이 수록됐다. 작품 서문을 쓴 마거릿 애트우드는 “이 책은 그녀의 목소리다. 생생하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2025년 오웰상(에세이 부문), 2024년 볼테르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문학성과 기록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최명진 기자

반목과 갈등 너머, 포용의 언어로 새긴 시간의 결

장애선 시인 첫 시집 ‘시간의 무늬’ 출간

1998년 ‘사람의 깊이’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장애선 시인이 27년 만에 첫 시집 ‘시간의 무늬’(문학들림)를 펴냈다. 그동안 이후 긴 시간 동안 사물과 삶을 바라보고 응시해온 시인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포용의 무늬를 발견하려 한다. 제목 그대로 ‘시간의 무늬’는 시간을 들여 시를 다듬고 또 다듬어가는 물리적 흐름 속 인생을 멀리 돌아온 연륜이 더해져 완성된 시집이다.



일상의 굴레에 순응하기보다 잠시 한 호흡을 갈무리한 자리에 머무르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너머의 결을 포착한다.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껴안고 누울 때/비로소 한 손이 되는 간고등어”(‘간고등어 한 손’)처럼, 시인은 함께 기대어 아مان 온전히 설 수 있는 생의 무늬를 그리고자 한다. “낮술에 취해 길가에 누운 새내”와 “웃자락을 당기는 젊은 아낙”이 등장하는 시 ‘등나

무릎 보며’에서는 욕망과 갈등의 현실을 오버랩하면서도, 보랏빛 등꽃으로 화해의 이미지를 겹쳐 놓는다. 시인의 어조는 잔잔하고 섬세하다. 삶의 내력과 감각을 품은 시어들은 때로는 농로 위에서, 때로는 한여름 무더위 속 거실에서 운이 난 결정처럼 반짝인다. 멀리서 달려오는 차를 보고 “할머니 허리춤 찰싸게 낚아채/안으로 담기”는 영감의 움직임(‘가을 풍경’), 열대야에 지쳐 웅크린 가장의 등을 “발갈게 익은 새우 등”(‘새우’)으로 비유한 장면에선 일상의 희로애락이 느껴진다.

시집 곳곳에는 개인사와 가족사, 마을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적 상처도 담겨있다. 시골의 대합실처럼 시간을 그리는 풍경에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과 화한이 스며 있으며, 시인 역시 ‘뺏겨 끌고 달아날 수 없는/쓸쓸한 저녁’(‘와 온에서’)처럼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철영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시인은 격랑 같은 감정의 노동에 맞서 밤을 새우는 고뇌를 기꺼이 감당해왔다”며 “한 편 한 편의 삶이 웅크려 자리 잡아 순정처럼 마음으로 재현된 서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버린 운명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장애선 시인은 강진에서 태어나 조선대 국문과와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치즈이야기=조예은 저자
‘영기고 얹히며 망가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매혹적인 아이러니.’ 2022년부터 삼 년간 발표한 일곱 편의 작품들을 엮은 조예은의 세번째 소설집 ‘치즈 이야기’에는 괴이한 존재들과 뒤섞인 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완성해나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방치된 채 썩고 문드러진 과거의 상처와, 일상을 위협하는 현재의 공포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압도해오지만, 조예은의 인물들은 자신에게 닥친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다. 방호벽을 뚫고 들어오는 낯선 존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려 노력한다. 그렇게 전혀 다른 ‘나’로 변모해간다. /문학동네·1만7천원



▲꽤 낙천적인 아이=원소윤 저자
익숙한 표현들로는 이 작가를 설명하는 것도, 이 소설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원소윤은 유쾌하면서도 아이러니한 화법으로 사회적 시선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선명해되 단순하지 않고 유쾌하되 휘발되지 않는 문학적 유머를 선사한다. 지적인 풍자, 유려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문장, 거기에 빠지지 않는 감동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새로운 언어의 등장 앞에서 출판계의 심장도 요동친다. /민음사·1만5천원



▲세이프 시티=손보미 저자
이 책은 인간의 기억을 삭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트라우마 치료와 범죄 예방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기억 교정술’이 국가 권력과 결합할 때,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와 권력의 작동 방식을 추적하며, 조작된 여론과 왜곡된 진실에 둘러싸인 한 여성의 고군분투를 통해 진실과 윤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창비·1만7천원



▲정치하는 아이들=김기수 글, 박연옥 그림
‘정치하는 아이들’은 ‘김선생님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치의 가치를 알려준 현직 교사가 직접 쓴 동화다. 이 책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생활 속 정치란 무엇이고 진정한 시민 정신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내 주변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속의와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결정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꼬마 시민 아홉 명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사회 문제력을 키울 수 있다. /월마·1만6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